

대학생의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을 중심으로*

고은애**

이혜주***

논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성격, 특히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 대학생들 중 3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소명이 높을 때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정적상관관계가 더 강화되었다. 셋째,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소명이 높을 때 성실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친밀성,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는 소명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학생의 진로 상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 진로태도성숙, 소명

*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제 20140175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여성소망센터(Women's Hope Center), 상담사, Director of Client Services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2015년 10월 27일 접수, 2016년 1월 4일 최종수정, 1월 11일 게재확정

1. 서론

진로란 직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어떤 시기에 특정 역할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을 합친 개념이다(Super, 1980). 슈퍼(Super)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진로탐색단계로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진로 확립단계를 앞두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민한다(Super, 1957). 실제로 한국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조혜영, 2010) 이는 높아지는 실업율과(통계청, 2014)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담은 진로스트레스로까지 이어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경필·심미영, 2014: 26). 따라서 이 시기의 청년들에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는 필수적이다. 특히 본인 스스로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선택하기에 이르기까지 진로를 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대학생들의 영적안녕과도 관계가 있으므로(황혜리·류수정, 2009: 370)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진로상담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이 보고되었다(김동원, 2013; 오현정, 2008; 이길수, 2004).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그 모양과 은사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롬 12:4-8; 창 1:11-12)는 말씀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차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개인의 성격으로 진로태도성숙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 개인의 성향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수준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성격과 진로미결정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검증된 변수로서 성별이 있지만(이예진 외, 2009; 이현정·김기석, 2008) 성별 또한 변화를 주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성향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찾을 필요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진로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직업소명을 찾아주는 것이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여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기독교를 넘어선 학문세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이다. 소명은 성격유형과 관

계가 있으면서도(조미숙 외, 2014: 69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나 직업만족과 더불어 여러 진로관련 변인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박주현·유성경, 2012: 551; 신윤정, 2013: 219; Wrzesniewski et al., 1997: 27).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성격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 있어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과 진로태도성숙

최근 진로태도성숙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진로결정효능감(박인주·김화진, 2015; 이상희, 2006), 부모애착이나 양육태도(우영지·이기학, 2007; 이영희 외, 2013; 이은진·이상희, 2009; 임진·이기학, 2003), 진로스트레스(이상희, 2012; 허성호·정태연, 2012)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더불어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은 내담자 개인의 성격차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진로상담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인 특성-요인 이론에 의하여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의 동기, 능력, 적성, 흥미와 더불어 내담자의 성격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슈퍼와 오버스트리트(Super and Overstreet, 1960)은 진로성숙을 연령단계에 따른 개념으로 보았으나 이현아(이현아, 2014)는 같은 연령단계에 있는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격차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모두 다름을 확인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성격과 진로성숙수준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김동원, 2013; 오현정, 2008: 38; 이길수, 2004: 55). 이는 상담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내담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로지도의 방법을 차별화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진로태도를 이끌기 위해 개인의 성격을 탐색하여 그에 따른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는 많은 검사들 가운데 성격5요인 검사는 성격을 수치화하여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성격차에 따른 진로변인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

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성격검사들 가운데 성격5요인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격 5요인은 사람의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밀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한다.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신경증이 높을수록 걱정, 초조, 감정 변화의 경향이 높고 신경증이 낮을수록 침착하고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신경증은 5가지 요인 중 유일하게 진로태도성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요인으로서(이현아, 2014: 39) 정서적 불안정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를 시사한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사교적이며 적극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외향성이 낮을수록 말 수가 적고, 과업 중심적이며 활기가 없는 경향을 보인다. 개방성은 자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방성이 높을수록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개방성이 낮을수록 관습적이며 흥미가 제한적인 경향을 보인다. 친밀성은 동정심과 적대감 사이에서 개인의 대인관계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친밀성이 높을수록 마음이 여리고, 도움을 잘 주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친밀성이 낮을수록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성실성이 높을수록 체계적이고, 믿음직하고 근면한 경향을 보이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목적이 없고, 게으르며 부주의한 경향을 보인다(노안영·강영신, 2014: 291).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성격 5요인 중에서도 특히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진로관련변인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향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고(김지연·황매향, 2004: 640; 이주희, 2004: 109),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다(임미향, 2008: 77-78). 또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동정심이 많고 수용적인 사람일수록 진로선택 수준이 향상됨이 밝혀졌는데(성지혜, 2013: 39) 이는 성격 5요인 중에서도 친밀성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다. 더불어 성실성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연·황매향, 2004: 640-641; 성벼리, 2012).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성격 5요인 중에서도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전반적인 진로태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게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에서도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진로태도성숙도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도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 가설 2.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도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 가설 3.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도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2.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역할

역사적으로 직업을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본 것은 16세기 청교도 개혁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Dik and Duffy, 2009: 426). 루터와 칼빈은 모든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장하며 세속적 직업을 평가절하하는 중세의 시대정신에 반대하였고(Hardy, 1990) 이로써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직업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된다(이홍배, 2007: 29-40). 오스 기니스(Os Guinness, 2006: 62-63)는 그의 책 『소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구별하였다. 그는 1차적 부르심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의 부르심, 2차적 부르심을 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역할로의 부르심으로 설명하며 2차적 부르심은 반드시 1차적 부르심이 선행된 후 발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소명은 주로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부름을 가리키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다가(Davidson and Caddell, 1994) 근래에는 심리학 영역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벨라와 그의 동료들은(Bella et al., 1986: 66)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직업, 경력, 소명의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소명을 실재 삶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성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소개하였다. 딕과 더피(Dik and Duffy, 2009: 427)는 소명이란 자신을 넘어선 외부로부터 비롯된 동기이며 일 자체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사회 지향적 가치와 목표를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소명의 세 가지 차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소명의 출발은 신 혹은 사회적 요구, 즉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온 특별한 삶의 역할이며 둘째, 이 특정 역할을 할 때는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목적이나 의미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 번덜슨과 톰슨(Bunderson and Thompson, 2009: 38)은 개인이 재능이나 은

사로 부여받았다고 운명적으로 믿는 일을 하는 사회적 직업을 소명이라고 정의하였고, 헌터와 그의 동료들은(Hunter et al., 2010: 181-182) 소명의 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소명을 이끄는 힘(Guiding Force), 개인적 적합성과 의미(Personal Fit and Meaning), 이타주의(Altruism) 등으로 설명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반 학문적 관점에서의 소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소명과 차이가 있다기 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소명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함한 개인의 목적과 의미 발견, 공동체적 지향, 열정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소명에 대한 연구는 특히 최근 서구의 진로상담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딕과 그의 동료들(Dik et al., 2009)은 내담자들은 직업소명에 관련된 경험을 얻기 원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진로관련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소명이나 직업소명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의 실존주의 심리학과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Viktor, 1963). 실제로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소속감을 가지며(Davidson and Caddell, 1994: 144) 일과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Wrzesniewski et al., 1997: 27) 높은 수준의 직업 헌신도를 가진다(Serow et al, 1992: 137).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을 원했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Serow, 1994: 69; Serow et al, 1992: 138).

소명 및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피와 세들라섹(Duffy and Sedlacek, 2007: 596)은 3091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명과 진로 결정성, 안정감, 자기 명확성, 유능감 사이의 정적상관을 밝혔으며 딕과 스테거(Dik and Steger, 2008: 208)는 소명을 가진 대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도 소명이 적응적인 진로발달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Constantine et al, 2006).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소명과 진로의 관계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박주현과 유성경(박주현 · 유성경, 2012: 551)은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이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오수진(오수진, 2011: 31-34)은 소명이 진로태도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양난미와 이은경(양난미 · 이은경, 2012: 59)은 소명과

진로정체감, 소명과 삶의 만족도와의 정적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신윤정(신윤정, 2013: 217) 역시 소명이 진로적응성,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조은영과 이지연(조은영 · 이지연, 2015: 17)은 초등교사의 감정보동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면서 소명이 초등 교사의 감정보동 중 표면적 행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는 소명이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고 심리적 만족감, 일에서의 유능감과 더불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향, 진로태도성숙, 소명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하였듯 개인의 성향과 진로태도성숙수준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관계의 정도는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같은 수준의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을 가진 학생도 소명의 정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수준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소명은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소명이 높을수록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가설 5. 소명은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소명이 높을수록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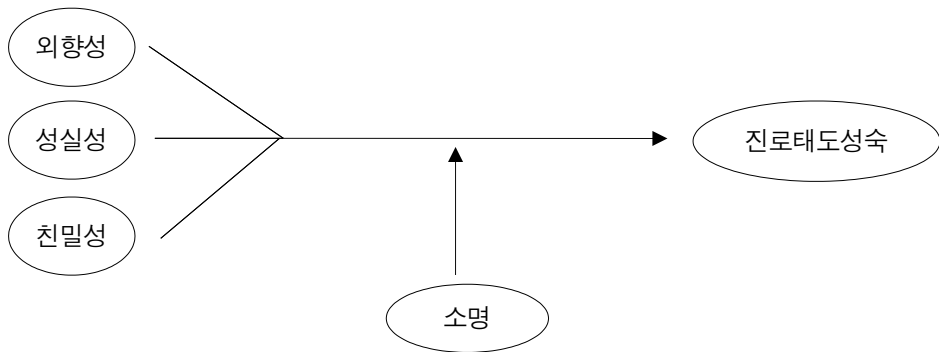
가설 6. 소명은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소명이 높을수록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성격, 그 중에서도 외향성, 성실성, 친밀성이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소명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전국의 대학교 2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244개의 표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표본 8개를 제외하고 총 236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에 응한 참가자들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50% 이었고, 학기수는 3학기 이상 35%, 5학기 이상 33%, 7학기 이상 27%이었다. 대학소재지는 서울, 경기 20%, 충청권 2%, 전라권2%, 경상권 72%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 56%, 자연공학계열 31%, 예체능계열 11%이었다.

3. 측정도구

(1) 성격5요인

성격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골드버그(Goldberg, 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하고 이현아(201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 5요인 측정을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검사인 NEO-PI-R(Costa·McCrae, 1992)은 검사 문항이 많아 시간소요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 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IPIP를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5가지 하위 성격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10문항씩 총 50문항,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해서 다룬 외향성의 예시

문항은 ‘사고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다.’, 친밀성의 예시문항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성실성의 예시문항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격 특성에 가까운 성격특성을 나타낸다. 골드버그가 제시한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신경증 .86, 외향성 .87, 친밀성 .82, 성실성 .74, 개방성 .80으로 나타났으며 이현아(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알파계수는 신경증 .87, 외향성 .91, 개방성 .76, 친밀성 .81, 성실성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외향성 .86, 친밀성 .80, 성실성 .72이었다.

(2) 소명

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딕과 그의 동료들(Dik et al., 2008)이 개발한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심예린(2010)이 번역과 역 번역을 통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4문항씩 총 12문항이다. 초월적 부름-존재의 문항예시는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목적/의미-존재의 문항예시는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친사회적지향-존재의 문항예시는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한다.’이다. 리커트식 5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심예린(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는 .85로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알파계수는 전체척도 .85이다.

(3)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결정성은 10문항이며 문항예시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이다. 목적성은 8문항이며 문항예시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이다. 확신성은 10문항이며 문항예시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이다. 준비성은 10문항이며 문항예시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이다. 독립성 9문항이며 문항예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 할 것이다.’이다. 총 47

개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산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진로태도성숙도 전체 .8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의 전체 신뢰도 분석 및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격 5요인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 그리고 소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향성, 성실성,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상호작용항이 가지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평균 중심화 방법을 실시하였다(Cohen et al., 2003).

IV.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학기 수, 성별,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 소명,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기 수는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성별 또한 진로태도성숙($r=-.131, p<.05$)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성격의 하위요인인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과 소명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외향성; $r=.234$, 친밀성; $r=.317$, 성실성; $r=.193, p<.01$). 또한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외향성; $r=.250, p<.01$, 친밀성; $r=.132, p<.05$, 성실성; $r=.204, p<.01$). 마지막으로 소명과 진로태도성숙 역시 강한 정적상관 결과를 나타냈는데($r=.410, p<.01$) 이는 모두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소명의 수준도 높고, 진로태도성숙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도 소명이 높은 학생들이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가설1, 가설2, 가설3은 지지되었다.

	1	2	3	4	5	6	7
1. 학기수	-						
2. 성별	-.057	-					
3. 외향성	-.029	-.012	(.86)				
4. 친밀성	.035	-.006	.383**	(.80)			
5. 성실성	.126	-.093	.250**	.332**	(.72)		
6. 소명	-.020	.019	.234**	.317**	.193**	(.85)	
7. 진로태도성숙	-.073	-.131*	.250**	.132*	.204**	.410**	(.89)

* $p<.05$, ** $p<.01$, ()의 숫자는 척도의 신뢰도 계수

〈표1〉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2.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외향성을 예측변인으로, 조절변인을 소명으로 투입해 준거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7.957$, $p<.001$). 1단계 결과에 따라 소명과 외향성은 모두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소명($\beta =.327$, $p<.001$)이 외향성($\beta =.163$, $p<.01$)보다 진로태도성숙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외향성과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은 높아지며 그중에서도 소명이 높을 때 그 영향력은 더 높아진다. 2단계에서는 외향성과 소명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단계	예측변인	진로태도성숙도				
		β	t	R^2	ΔR^2	F
1	외향성	.163	2.697**	.193		27.957***
	소명	.372	6.151***			
2	외향성	.170	2.796**	.196	.003	18.987
	소명	.378	6.224***			
	외향성x소명	-.061	-1.019			

† $p<.10$, * $p<.05$, ** $p<.01$, *** $p<.001$

〈표2〉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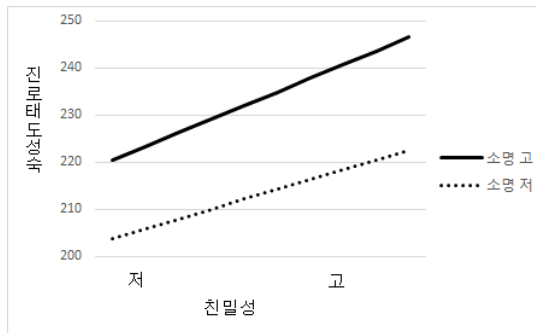
3.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친밀성과 조절변인인 소명을 투입해 준거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3.588$, $p<.001$). 그러나 소명($\beta=.409$, $p<.001$)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친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은 높아지지만 친밀성은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친밀성과 소명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4$, $p<.05$).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소명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아래에 있는 집단을 소명 저 집단으로, 1표준편차 위에 있는 집단을 소명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Cohen et al., 2003) [그림2]에 제시하였다. [그림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소명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친밀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의 변화 정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친밀성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이에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단계	예측변인	진로태도성숙도				
		β	t	R^2	ΔR^2	F
1	친밀성	.002	.035	.168		23.588***
	소명	.409	6.503***			
2	친밀성	-.025	-.397	.182	.014	17.288***
	소명	.397	6.322***			
	친밀성x소명	.124	2.017*			

† $p<.10$, * $p<.05$, ** $p<.01$, *** $p<.001$

〈표3〉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그림2]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4.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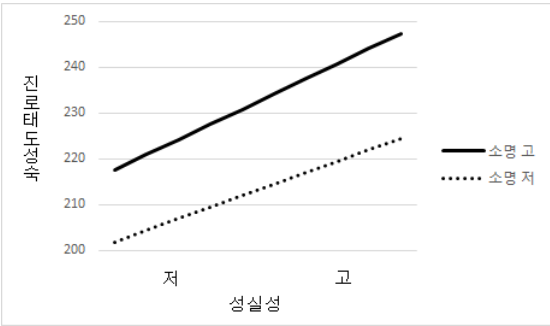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성실성과 조절변인인 소명을 투입해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F=26.363$, $p<.001$)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성실성과 조절변인인 소명은 모두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조절변인인 소명($\beta = .385$, $p<.05$)이 독립변인인 성실성($\beta = .129$, $p<.01$)보다 진로태도성숙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실성과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은 높아지며 그중에서도 소명이 높을 때 그 영향력은 더 높아진다. 2단계에서

는 성실성과 소명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5, p < .10$).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명 수준을 소명 고, 소명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때, 소명 고 집단은 소명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에 있는 집단, 소명 저 집단은 소명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아래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그림3]에 제시하였다. [그림3]을 보면 소명 고 집단과 소명 저 집단이 성실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의 변화량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소명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실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수준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이에 가설 6은 지지되었다.

단계	예측변인	진로태도성숙도				
		β	t	R^2	ΔR^2	F
1	성실성	.129	2.150**	.184		26.363***
	소명	.385	6.391*			
2	성실성	.112	1.842†	.196	.012	18.973***
	소명	.369	6.103***			
	성실성x소명	.115	1.90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4〉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그림3]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V.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5요인 중에서도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2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 소명, 진로태도성숙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격요인인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으며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박주현·유성경, 2012; 오수진, 2011; 오현정, 2008; 이길수, 2004; 이현아, 2014)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소명의식이 높고 자신이 위치한 진로발달단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둘째,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김지연·황매향, 2004; 이주희, 2004; 임미향, 2008; 성벼리, 2012; 성지혜, 2013) 바탕으로 진로관련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외향성, 성실성, 친밀성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은 다른 두 변인들 보다 진로태도성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상관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소명의 수준이 외향성과 진로태도성숙간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유로 추측된다. 셋째, 친밀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는 소명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명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친밀성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증가량의 변화가 더 컸다. 이는 단순히 대인관계에서 우호적이거나 동정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로태도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가 외부로부터의 부르심과 목적의식이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성실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도 소명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실한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성실함의 정도가 같은 학생이라도 자신의 진로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학생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었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표본수의 70%이상이 경성권 학생들에 편중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추후연구에서는 지역별 동일한 비율로 모집단을 선정한다면 연구 결과의 적용에 보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소명척도는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나의 일은 공익에 기여한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어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다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명척도를 새로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구 뿐 아니라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성격에 따라 진로지도를 해야 하지만 성격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격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소명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찾아내었다. 다시 말해 친밀성, 성실성이 낮은 학생들이라도 소명수준이 낮을 때 보다 소명수준이 높을 때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 상담 시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상담을 한다면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내적인 동기를 찾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로상담자는 외적 변인보다 내적 변인을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Norman E et al., 2013: 86). 소명 자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명을 고려하여 진로상담이 진행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내적변인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연구로써 요즘과 같이 진로불안이나 진로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에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다 성숙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기독교적 관점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소명이라는 주제를 학문적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소명의 역할을 증명한 바, 확장된 개념으로의 소명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명의 하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소명의 전체수준을 조절변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소명의 3가지 하위차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보았을 때 상관의 정도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박주현·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이는 소명의 3가지 하위차원이 각각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조절효과 크기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명의 3가지 하위요인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더피와 오틴(Duffy and Autin, 2013: 225)은 소명을 인식하는 그룹과 소명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룹의 연봉과 교육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명을 인식하는 것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소명을 인식하는 그룹과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룹을 구분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성격5요인과 진로태도성숙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바, 추후 연구로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알아본다면 성격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경필·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김지연·황매향 (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637-646.
- 김동원 (2013). “성격 특성과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수준,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3). 607-625.
- 노안영·강영신 (2014). 『인간 이해 및 성장을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민주·고김화진 (2015).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관광연구』, 29(6). 83-101.
- 박주현·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3(2). 543-560.
- 성버리 (2012). “Big5 성격 요인과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2. 262-262.
- 성지혜 (2013).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심예린 (2010). “한국판 소명 척도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난미·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오수진 (2011).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오현정 (2008). “성격 5요인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우영지·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유태용·이기범·Ashton, M. C.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

- 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353-366.
- 이길수 (2004).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5요인 성격특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상담학 연구』, 7(4), 1123-1135.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영희 · 이주현 · 정혜정 (201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3-22.
- 이예진 · 손현국 · 임유경 · 오서진 · 이동귀 (2009).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009, 376-377.
- 이은진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29-548.
- 이주희 (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103-115.
- 이홍배 (2007). “목회자 소명감사의 개발.” 박사학위 논문. 성결대학교
- 이현아 (2014).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 5요인 및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현정 · 김기석 (2008). “성격적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성별 조절효과.” 『산학경영연구』, 21(1), 51-71.
- 임미향 (2008). “청년의 삶의 질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임진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1), 471-472.
- 조미숙 · 천세희 · 김창숙 (2014). “임상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4(5), 689-694.
- 조은영 · 이지연 (2015). “초등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3(3), 1-23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 연구.” 『상담평가연구』, 3(2), 15-30.
- 통계청 (2014). 2014년 성/연령별 실업률.
- 허성호 · 정태연 (2012). “대학생의 불안증상이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분

- 석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195.
- 황혜리 · 류수정 (200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18. 355-380.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6).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nstantine, M. G., Miville, M. L., Warren, A. K., Gainor, K. A., & Lewis-Coles, M. E. L. (2006). “Religion, spirituality, and career development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 qualitative inqui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 227-241.
- Costa, P. T., & McCrea, R. R. (1992). *Professional manual: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ik, B. J., & Steger, M. F. (2008). “Randomized trial of a calling-infused career workshop incorporating counselor self-disclos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 203-211.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Dik, B. J., Duffy, R. D., & Eldridge, B. M. (2009).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625-632.
- Dik. B. J., D.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424-450.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of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27-41.
- Duffy, R. D., & Autin, K. L. (2013). “Disentangling the Link Between Perceiving

- a Calling and Living a Cal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219-227.
- Davidson, J. C., & Caddell, D. P. (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35-147.
- Frankl, V.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rdy, L. (1990). “The fabric of this world: Inquiries into calling, career choice, and the design of human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 Hunter, I., Dik, B. J., & Banning, J. H. (2010).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lling in work and life: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178-186.
- Norman E. Amundson, J. H.-B., & Spencer G. Niles (2013). *Essential Elements of Career Counseling: Processes and Techniques*.(3rd)
- 이동혁 · 황매향 · 임은미 역(2013). 『진로상담 과정과 기법』. 서울: 학지사.
- Os Guinness. (2000). *The Call*.
- 홍병룡 역 (2006). 『소명』. 서울: IVP
- Serow, R. C., Eaker, D., & Ciechalski, J. (1992). “Calling, service, and legitimacy: Professional students: orientations and career commitment among prospectiv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5. 136-141.
- Serow, R. C. (1994). “Called to teach: A study of highly motivate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7. 65-72.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 Harper & Row.
- Super, D. E., & Overstreet. P. L. (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21-33.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cusing on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un-Ae Ko (Women's Hope Center)

Hye-Joo J. Lee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especially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236 university students, who attended universities more than two semest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s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not confirmed.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show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stronger if the degree of calling was higher.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confirmed such that the relationship was stronger for those who have high perception of calling. Based on the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alling.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n the field of career counseling for university students were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career attitude maturity, calling